

# 구광모 회장 “최우선 기준은 고객... 도전·변화 이어갈 것”

(LG그룹)

## 2025 LG 어워즈

미래혁신 부문 등 87개팀·680명 수상  
역대 수상자 기념 ‘명예의 전당’ 공개

LG가 고객 가치 혁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2025 LG 어워즈’를 열고, 역대 수상자를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이번 어워즈에는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해 최고경영진과 고객 대표, 수상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생중계에도 약 1000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LG 어워즈는 고객의 삶을 바꾼 제품과 서비스 혁신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총 492개 팀, 400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구 회장은 행사에서 “앞으로도 LG의 미래가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언제나 최우선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객”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설치된 ‘명예의 전당’은 LG인화원 연암홀 로비에 마련됐다. 지금까지 고객감동대상을 받은 160명의



지난 9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LG 어워즈에서 구광모 LG 회장(뒷줄 왼쪽 첫번째)이 고객 대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그룹

이름과 21개 수상 과제가 명패로 전시됐다. LG는 계열사별 전용 전시 공간도 마련해 수상자 명패를 부착하고, 주요 회의실에도 대상 수상자 이름을 부착해 고객 가치 실천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구 회장은 수상자들에게 “그동안 혁신의 노력을 모아 LG인화원에 명예의 전당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여기에 새겨질 여러분의 이름과 노력은 많은 LG인에게 도전과 열정의 가이드북이자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개인 ▲기반혁신 ▲미래혁

신 등 3개 부문에서 총 87개 팀, 68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 부문 대상은 LG전자의 문성국 책임이 수상했다. 그는 버튼 하나로 에어컨 내부를 열어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클린뷰’ 기능을 개발해 고객 불편을 해소했다.

기반혁신 부문은 자율 이동 로봇을 활용해 2차 전지 공장의 물류 효율을 높인 LG에너지솔루션이, 미래혁신 부문은 카메라 모듈 기술을 고도화한 LG이노텍이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탐지 AI 기술 ‘익시오(ixi-O)’를 개발한 LG유플러스, 생성형 AI 모델 ‘엑스원 3.5’를 선보인 LG AI연구원, 선루프 투명도 조절 필름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LG화학 등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 회장은 “LG의 도전과 변화의 DNA를 더욱 진화시켜 또 다른 최초·최고의 차별적 가치로 이어가고 고객에게 더욱 사랑받는 LG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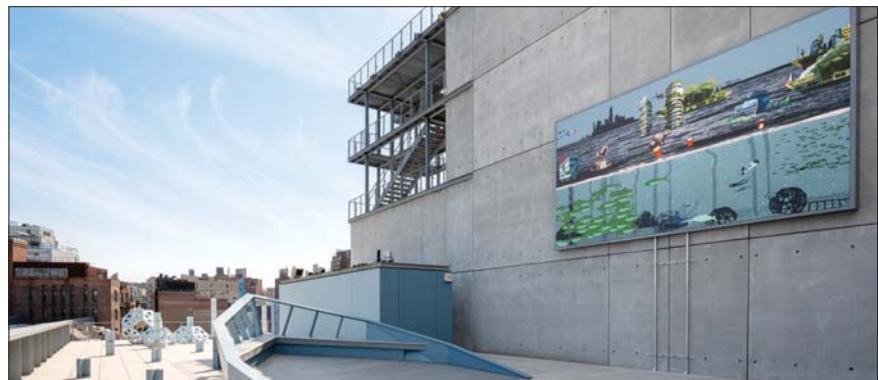
## GS리테일, 시니어 도보배달 사업 추진

GS리테일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 도보 배달 사업 ‘GS리테일X천안시 시니어 우친’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진혁 GS리테일 O40부장(왼쪽부터), 박상돈 천안시장, 엄영욱 천안시니어클럽 실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GS리테일



## 한국PR협회, 신임 집행부 출범

한국PR협회는 2025년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집행부를 출범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는 조영석 신임 한국PR협회장(가운데)을 비롯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29대 임원진이 참석해 한국PR협회의 방향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PR협회



‘현대 테라스 커미션: 마리나 저코우: The River is a Circle’ 전(展) 전시 전경. /현대자동차

## 현대차, 美 ‘현대 테라스 커미션’ 전시

마리나 저코우 작가 참여

현대자동차는 9일(현지시간)부터 내년 초까지 미국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현대 테라스 커미션: 마리나 저코우: 더 리버 이즈 어 서클(The River is a Circle)’ 전을 연다고 밝혔다.

‘현대 테라스 커미션’은 현대차와 휘트니 미술관이 예술가와 큐레이터에게 기존과는 다른 창조적 실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년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는 전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작가로 참여한 마리나 저코우는 뉴욕의 기후와 계절 변화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작품을 설계했으며 휘트니 미술관이 위치한 뉴욕 미트패킹 지역의 역사와 허드슨강의 생태적 요소들이 어우러진 애니메이션은 수평으로 분할된 화면 구성을 통해 관객들이 수면 위와 아래를 동시에 관측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승용기자 lsy2665@

**오늘의 날씨**

4월 11일 (금)  
음력: 3월 14일

수도권 날씨  
8 ~ 24 °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45 | 해질 / 18:38

연천 5/24, 동두천 6/24, 가평 5/25, 양평 6/24, 용인 7/23, 평택 5/24, 수원 7/23, 인천 8/19, 서울 8/24, 파주 4/23, 백령도 6/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LG전자, 전국 사업장 응급의료체계 구축

아주대 업무협약... 닥터헬기 이송

LG전자가 전국 사업장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닥터헬기를 활용해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했다.

LG전자는 최근 아주대학교병원과 ‘응급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체계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도권 사업장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닥터헬기가 즉시 출동해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로 환자를 이송한다. 경남 창원·경북 구미 등 지방 사업장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

치를 받은 후 헬기로 아주대병원까지 이송한다.

응급 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LG전자는 사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병원과 함께 비상 대응 합동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 문화 확산도 함께 진행한다. LG전자는 평택·창원·마곡 등 주요 사업장에 체험형 안전체험센터를 잇달아 개설하며 실습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권순일 LG전자 안전환경센터장은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며 “골드타임 내 치료체계를 통해 임직원과 가족의 안전한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 유진그룹, 산불 피해복구 키트 기부

유진그룹이 1억원 상당의 ‘산불 피해복구 키트’ 700세트를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유진레저, 동화기업 등 유진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재원 조성에 동참했다. /유진그룹

## 대·중기협력재단 변태섭 사무총장 취임

대·중소기업·농어 협력재단 제7대 사무총장에 변태섭 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이 취임했다.



변 신임 사무총장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거쳐 미국 워싱턴주립대 행정학 석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운영지원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변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단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승호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시민 생명·안전 지켜

강경민씨, 음주운전 차량 신고·추격  
최기원씨, 화재현장 발견... 진화나서

CJ대한통운은 음주 차량 추격과 화재 현장 대피에 기여한 소속 택배기사 2명에게 포상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상의 주인공은 제주시 노형동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을 담당하는 택배기사 강경민(34) 씨와 최기원(44·사진) 씨다.

강경민 씨는 지난달 15일 제주시 노형 로터리 인근에서 귀가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했다. 위태롭게 끼어드는 차량의 움직임에 위험을 직감한 그는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도주 차량은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최기원씨가 포장을 취하고 있다.

제동에서 최기원 씨의 활약이 있었다. 배송 중 스티로폼 타는 냄새를 감지한 그는 주변을 살피던 중 한 다세대주택 보일러실 문틈에서 연기와 불꽃을 발견했다. 즉시 건물 내부로 들어가 세대를 일일이 돌며 주민 4명을 대피시키고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서는 등 시민의 생명을 지켰다. /김승호 기자 bada@

## 부음

▲정명희씨 별세, 심근색(전 안법고교 교사)·심진석(재미·사업)·심인석(전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심현석(LS MnM 부사장)·심정석(재미)씨 모친상 = 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2일. 02-3010-2000